

## 【자료소개】

『滿洲歷史地理』上, 第2編 : 漢代の 滿洲

# 「만주에서의 前漢의 영토」(稻葉岩吉) 譯註\* 2

이준성\*\* · 위가야\*\*\* · 박준형\*\*\*\*

### 차례

2. 遼西郡
3. 右北平郡

## [해설]

『滿洲歷史地理(上)』의 제2편인 「漢代的 滿洲」는 다시 두 개의 절로 나뉘는데, 1절은 「만주에서의 前漢의 영토」이고, 2절은 「만주에서의 後漢의 영토」이다.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되는 1절 「만주에서의 前漢의 영토」는 遼東·遼西·右北平郡의 세 군에 대한 위치비정을 다루고 있다.

지난 『만주연구』 14호에서는 분량 문제로 인해 해설과 함께 요동군의 내용만을 게재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요서군과 우북평군의 번역과 역주를 이어서 다룬다.

\* 稻葉岩吉, 「만주에서의 前漢의 영토」(白鳥庫吉 監修, 箭內互·稻葉岩吉·松井等 撰, 1913, 『滿洲歷史地理』 上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 연세대학교 강사,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 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 학예연구사

[번역]

## 2. 遼西郡

後漢<sup>1)</sup>의 遼西郡은 秦代의 행정구획을 이어받았으며 거의 차이가 없다. 『한서』(권28) 지리지에 “이 군의 현의 수는 14”라고 했지만 錢大昭는<sup>2)</sup> “絳侯世家에<sup>3)</sup> 요동·요서의 29현을 평정했다고 했는데 지리지에는 요동군과 요서군이 32현이라고 적혀 있으니, 즉 『한서』의 기사가 『史記』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아마도 후대에 析置되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 29현이란 어쩌면 秦代에 설치한 모든 현의 수일 것이며, 한나라가 여기에 3현을 더 설치해서 32현이라고 했을 것이다.

요서군의 강역은 동쪽은 대릉하 우안에서 시작되고, 서쪽은 灤河 하류를 포괄하며, 동남쪽은 바다와 마주보고, 북쪽은 松嶺산맥을 끝으로 右北平郡과 경계를 이룬다. 다만 대릉하 상류 유역은 이 군의 관할 밖에 있다.

## 1) 且慮縣(지금의 朝陽府)

이 현은 요서군 14현<sup>4)</sup>의 第一位로 설치되었다. 漢代에는 首班이 되는 현의 관아를 해당 군의 치소로 정하는 것이 상례였다. 范曄이 郡國志를 편찬할 때는 분명히 이 의례를 지켰을 것이므로 군의 首縣이 바로 군의 치소가 소재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班固의 지리지가 반드시 이 상례를 따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右北平郡의 수현인 平剛, 樂浪郡의 수현인 遼東郡의 수현인 陽平 등이 모두 군의 치소인 것이 의심할 것 없는 이상, 이 현도 역시 해당 군의 치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서』(권28) 지리지에 “高廟가 있다”고 했다. 이 高廟란 한나라 高祖의 묘를 가리키

1) [역자주] 前漢의 誤記로 보인다.

2) 『漢書辯疑』(권15) 참조.

3) [역자주] 『사기』권57 絳侯周勃世家를 말한 것이다.

4) [역자주] 원문은 ‘郡’으로 되어 있으나 ‘縣’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바로잡는다.

고, 천자가 君國에 조서를 내려 건립하게 한 것이므로 묘의 소재지는 많은 경우 그 군의 치소라고 考定할만한 이유가 있다.

『수경주』(권14) 濡水篇에

地理風俗記에서 말했다. “陽樂은 옛 燕나라의 땅이고 遼西郡의 치소이다. 秦始皇 22년에 설치하였다.

라고 했다. 酈道元은 이 기사를 인용해서 陽樂을 요서군 치소라고 했다. 역도원의 설은 군국지에 부합되므로 여러 학자들이 또한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견으로는 이것이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면 후한 때에 代郡의 치소는 高柳에 있었는데, 『수경주』(권13) 灑水篇에서 “옛 代郡의 치소로 秦始皇 23년 趙王 遷을 포로로 잡고 國을 郡으로 삼았다”고<sup>5)</sup> 했다. 역도원이 이 高柳를 받아들여서 秦·漢 이후 군의 치소가 되었다고 했지만, 해당 현이 치소로 정해진 것은 후한 때가 처음이고, 전한 때에는 廣昌縣에 설치되었다. 역도원의 해설은 아마도 후한 이후의 사실을 미루어 진·한 무렵에까지 잘못 미치게 한 것이리라.

양락을 진·한 이래 옮겨지지 않은 군의 치소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 잘못에 연루된 것은 아닐까. 만약 위와 같은 생각에 큰 잘못이 없다면 이 현은 전한 때 군의 치소가 된다. 현의 위치는 확실하게 가리킬 수 없다. 그렇지만 후한 때에 들어가 별안간 상실하였음을 생각하면 대릉하 상류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지금의 朝陽은 어찌면 현의 치소가 있었던 곳일 것이다.

5) [역자주] 楊守敬의 『水經注疏』에 따르면 진이 조왕 천을 포로로 잡은 해가 진시황 19년이다. 이후 뒤를 이은 조왕 가를 사로잡아 조를 멸하고 그 나라를 郡으로 삼은 해가 진시황 25년인데, 이 때문에 양수경은 원문을 “秦始皇二十五年 虜趙王嘉 以爲郡”으로 수정하고 있다.

2) 海陽縣(지금의 永平府 서남쪽)

『한서』(권28) 지리지 요서군 조에

海陽. 龍鮮水가 동쪽으로 封大水에 들어가고, 緩虛水와 모두 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鹽官이 있다.

라고 했다. 『수경』(권14)에서 濡水를 서술하길 “濡水는 塞外로부터 와서 요서 동남쪽인 令支縣 북쪽을 지나 또 동남쪽으로 가서 海陽縣을 지나고, 서남쪽으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했다. 이 글에 따르면 해양이 유수 유역에서 令支縣 동남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수경주』(권14)에 인용된 『魏土地記』에 따르면 “令支城 남쪽 60리에 海陽城이 있다”고 했다. 이 기사는 해양이 영지 남쪽 60리에 있음을 가리킨다. 『대청일통지』(권13)는 灤州의 서쪽을 빠르게 흘러가는 陵河를 龍鮮水 및 封大수로 비정하고, 沙河를 緩虛수로 비정했다. 따를만하다. 영지는 지금의 遷安縣 부근에 해당되므로, 그 지역의 서남쪽 60浬는 곧 이 현에 속한 곳이다.

3) 新安平縣

이 현의 위치를 비정하는데 종래 두 가지 설이 있었다. 하나는 난주 서쪽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 설의 근거는 『수경주』(권14) 유수편 봉대수의 주석에서

封大水는 新安平縣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흘러 新安平縣 故城 서쪽을 지난다. 地理志에서는 遼西의 屬縣이다. 또 동남쪽으로 흐르는데 龍鮮水가 여기에 흘러들어간다.

라고 한 것이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新安平은 봉대수 즉 지금의 陵河 東岸에 있다고 간주(視做)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하나의 설은 『遼史』<sup>6)</sup>(권39) 地理志에서 中京大定府 즉 지금의 蒙古 喀喇沁의 大寧城을 옛 신안평현이라

고 한 것이다. 이 설은 『遼史』에서 처음 나온 것이므로 『대청일통지』에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렇지만 물러나 생각할 때 『요사』는 무엇에 근거하는 바가 있어 이와 같이 단정했는가. 우리가 시험삼아 두 설을 비판하건데 난주설은 유력한 기사에 근거한 것이므로 쉽게 의심이 허락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의 의문이 없지는 않다. 그것은 지리지에서 이 현의 경내의 水라고 한 다음의 한 구절을 가리킨다. “夷水는 동쪽으로 塞外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夷水를 지금의 어느 水로 추정할 수 있는가는 쉽게 단정할 수 없지만, 이 水가 동쪽으로 흘러 塞外로 나온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이 현을 난주 부근에 두고 이와 같은 河의 흐름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완전히 절망적이다. 『요사』의 대정부 신안평현 설은 오히려 漢志의 기사와 모순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요사』의 설을 버릴 수 없는 제1의 이유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 현은 후한 때에 들어가 없어졌다. 그 사정은 분명치 않다. 그렇지만 현을 없앤 일의 많은 경우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그 변방의 塞에 가까이 있어 鮮卑·烏丸 등 외적의 침범을 받은 것이 현을 없애거나 옮기는 일이 반복된 이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현도 같은 사정 아래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살펴보면 후한이 없앤 현은 주로 山海關 동쪽에 있다. 난주설은 또한 이 점에 모순이 없을 수 없다. 그리하여 대정부설이 도리어 유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을 보면 신안평현을 지금의 조양 경내에서 찾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수 있을 것 같다.

#### 4) 柳城縣(지금의 조양 서남쪽)

이 현은 지금의 조양부 서남쪽에 있다. 『수경주』(권14) 白狼水 항목에서

白狼水는 또 동북쪽으로 龍山 서쪽을 지난다. 燕나라 慕容皝이 柳城의 북쪽 龍山の 남쪽을 福地라 하고 陽裕에게 龍城을 쌓게 하고 柳城을 고쳐서 龍城縣으로 삼았다.

6) [역자주] 원문에는 遼志로 되어 있으나 遼史로 바로 잡았다.

라고 했다. 白狼水는 지금의 대릉하 상류를 말한다. 龍城<sup>7)</sup>은 지금의 조양에 있다. 이 글은 柳城이 용성 지역에서 멀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유성을 고쳐 용성현으로 삼았다고 했으므로 유성이 곧 용성인 것 같지만 해당 기사의 불명확함에서 오는 오해일 것이다. 용성은 용성이고 유성은 유성으로, 반드시 처음부터 뒤섞여 보였다고 할 수는 없다. 『水經注疏要刪』<sup>8)</sup>(권14)을 볼 때 地形志의 용성현조를 살펴보면 眞君 8년(서기 447)에 유성을 합쳤다고 했다. 이것이 용성·유성을 두 개라고 하는 이유이다. 아마도 모용황이 유성을 고쳐 용성이 되게 했다고 한 것은 곧 유성을 폐지하고 따로 용성을 둔 것으로, 위나라 초에 이르러 다시 유성을 둔 것을 진군 8년에 또 유성을 폐지하고 용성에 편입시킨 것을 말한 것이다. 이 설은 대체로 따를만하다.

각설하고, 그렇다면 유성·용성이 각기 다른 지역이라고 하고 양자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었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두 성의 거리가 결코 멀리 떨어져 있다고 믿을 수는 없다. 오히려 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믿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모용황이 정하여 용성현으로 삼은 이래로 元魏<sup>9)</sup>가 바로 이어 받아 營州의 치소로 삼았는데, 隋는 또한 같은 지역에서 유성현을 창설했다. 이 같은 사실은 용성이 유성과 근접해 있었으므로 편의상 옛 이름을 버리고 漢代의 현 이름을 회복시킨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明一統志』(권5)에서 이 현을 영평부 서쪽 20리에 있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sup>10)</sup> 『한서』(권28) 지리지는 이 현에 대해서 거듭 다음과 같이 말한다.

馬首山은 서남쪽에 있다. 參柳水가 북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西部都尉의 치소이다.

馬首山은 아마도 지금의 봉황산 일대의 산이 모인 곳(山囊)을 가리킨다.

7) 246~247쪽 참조.

8) [역자주] 원문에는 『水經注要刪』으로 되어 있으나 『水經注疏要刪』으로 바로 잡았다.

9) [역자주] 北魏를 말한다.

10) 『京東考古錄』 辨龍城 참조.

參柳水가 북쪽으로 흘러 바다<sup>11)</sup>에 들어간다고 한 것을 생각하면 拿拉特河는 어쩌면 바로 이 水에 해당할 것이다.

#### 5) 舍支縣(지금의 遷安<sup>12)</sup> 서쪽)

이 현은 지금의 천안 서쪽에 있다. 『수경』(권14)에 “濡水는 塞外로부터 와서 동남쪽으로 遼西 舍支縣 북쪽을 지난다. 또 동남쪽으로 海陽縣을 지나 서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고 했다. 이 글에 따르면 舍支는 우수 남쪽, 해양현 동북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수경주』(권14)에 우수가 盧龍塞(지금의 喜峯口) 부근에 들어간 후의 경로를 기록해서

濡水는 또 남쪽으로 흐르는데 黃洛水가 여기에 흘러들어간다. 水는 盧龍山에서<sup>13)</sup> 나와 남쪽으로 濡에 흘러 들어간다. 濡水는 또 동남쪽으로 洛水와 합쳐진다. 水는 盧龍塞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濡水로 흘러간다. 濡水는 또 굽이쳐 흘러 左로 潤水와 떨어져 있고<sup>14)</sup> 또 敖水와 합쳐진다. 두 水가 모두 盧龍 서쪽으로부터 濡水로 흘러간다. 濡水는 또 동남쪽으로 흘러 舍支縣 故城 동쪽을 지난다. 王莽의 舍氏亭이다. 秦始皇 22년 燕나라를 나누어 遼西 郡을 설치하고 舍支를 이에 예속시켰다.

라고 했다. 『대청일통지』는 潤水와 敖水를 지금의 청하 본류로 추정한다. (청하는 천안의 서북쪽 70浬에 있고 원류가 口外에서 나와 大嶺으로부터 흘러 太平寨 앞에 이르고, 또한 蛤螺河가 있고, 口外에서 나와 城子嶺으로부터 흘러 여기에 이르러 합류하고, 남쪽으로 가서 灤河로 들어간다.) 청하는 천안의 서북쪽에서 우수와 합류하는 것이므로 『수경주』에서 말하는 舍支縣 故城은 이들 두 水의 합류점 이남 멀지 않은 지방에서 찾아야 한다. 『대

11) 塞外에서 호수와 못[湖澤]을 달리는 바다라 불렀다. 『한서』 지리지 金城郡 臨羌縣조에 “서북쪽으로 塞外의 西王母 石室 僊海 鹽地에 이른다”고 했다. 이 僊海란 것은 지금의 青海를 말한다.

12) [역자주] 원문에는 ‘遷西’라고 되어 있으나 ‘遷安’의 오키음이 분명하므로 바로잡는다.

13) [역자주] 『수경주』 원문에는 “出盧龍塞”가 “北出盧龍塞”로 되어있다.

14) [역자주] 楊守敬은 『水經注疏』에서 “左得去潤水”를 “左得潤水”로 수정하고 있다.

청일통지』(권14)는 이 현성을 천안 서쪽으로 추정하였다.

『한서』(권28) 지리지는 이 현의 경내에 옛 孤竹國의 遺城이 존재하는 것을 기록하여 “孤竹城이 있는데 莽이 舍氏亭이라 불렀다”고 했다. 『수경주』(권14)는 유수가 영지현 치소를 지난 후 玄水 동북쪽으로부터 와서 유수와 합류하는 지점에 이 성이 존재하는 것을 말했다.

玄水는 또 서남쪽으로 孤竹城 북쪽을 지나고 서쪽으로 濡水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地理志에서 말하기를 玄水가 동쪽으로 濡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대개 동쪽에서 나와 들어간다는 것이다.

玄水란 지금의 어느 水에 해당될 수 있는가. 『수경주』(권14)에 “현수는 肥如縣 동북쪽의 玄溪에서 나온다”고 했다. 『대청일통지』(권14)는 肥如縣을 지금의 盧龍縣 북쪽으로 비정했으므로 그 동북쪽을 지나 흐르는 큰 水는 口外로부터 오는 靑龍河가 아닐 수 없다. 청룡하가 유수와 합류하는 지점은 永平府 서쪽에 있다. 이 지점은 아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孤竹城은 청룡수가 난하로 들어간 지점의 좌안에 있는 것으로 지금의 영평부는 그 遺址일 것이다. 『대청일통지』(권14)는 따로 하나의 설을 제기하여 노룡현 남쪽에 있다고 했다.

#### 6) 肥如縣(지금의 영평부 동북쪽)

이 현은 지금의 영평부 북쪽에 있다. 『수경주』(권14)는 현수의 물길을 서술하여

玄水는 肥如縣 동북쪽 玄溪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흘러 그 현 동쪽을 지난다. 동쪽으로 꺾여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서쪽으로 돌아 肥如縣 故城을 지난다. 南俗에서 또 肥如水라고 불렀다. ……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오른쪽에서 盧水와 합류한다. …… 玄水는 또 서남쪽으로 孤竹城 북쪽을 지나고, 서쪽으로 濡水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地理志에서 말하기를 玄水가 동쪽으

로 濡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대개 동쪽에서 나와 들어간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孤竹城은 지금의 영평부에 있다. 현수란 지금의 청룡수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肥如城은 영평부의 동북쪽 청룡수의 右岸에서 찾지 않을 수 없는데, 『수경주』는 그 지점을 盧水가 현수와 합류하는 부근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수란 어느 水로 비정할 수 있을까. 『한서』(권28) 지리지는 이 현 항목에 기록하여 “또 盧水가 있는데 남쪽으로 玄에 들어간다”고 했다. 노수는 현수의 한 지류인 것을 알 수 있다. 『수경주』(권14)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盧水是 縣(肥如)의 동북쪽 沮溪에서 나와 남쪽으로 흐르는데 大沮水라고 부른다. 또 南左로 陽樂水와 합쳐진다. … 또 서남쪽으로 小沮水로 흘러간다. … 또 남쪽으로 흘러 大沮水와 합쳐져서 盧水가 된다. … 또 남쪽으로 玄水로 들어간다.

이 글에 따르면 노수의 上源은 沮溪에서 나와 大沮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노수란 명칭은 오히려 하류에서 불린 것 같다. 『수경주도』(제2책)는 이 물을 지금의 천안 동북쪽을 지나가는 사하로 추정했다. 따를만하다. 그런데 현수는 지금의 청룡하, 노수는 지금의 사하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들 두 水의 흐름이 합쳐지는 곳은 비여현에 소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대청일통지』(권14)가 舊志의 설을 인용해 노룡현의 서북쪽 30리에 있다고 한 것은 근거가 되기에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비여현의 동쪽을 질러가는 현수(청룡수)가 영평부 경계에 들어가 유수와 흐름이 합쳐지는 것은 앞에서 게재한 『수경주』에서 이미 이것을 말했고, 지리지<sup>15)</sup>에서는 “玄水是 동쪽으로 濡水에 들어간다. 濡水是 남쪽으로 入海陽(海陽의 陽은 衍文)”이라고 했다. 유수는 지금의 난하를 가리킨다. 현행본 『수경주』(권14)에는 “濡와 難의 소리는 서로 비슷하다”고 했지만 이 濡란 글자

15) [역자주] 『한서』권28下, 지리지 제8下.

는 잘못으로 실은 溟字라고 해야 할 것이다. 王念孫의 설<sup>16)</sup>에서 “白檀塞外의 유수. 글자는 본래 溟로 쓰고 水변 옆의 溟로 소리낸다. 俗은 軟으로 쓰여지고, 고로 溟은 그 聲에 따라 발음하지 않고, 乃官의 反, 聲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서』 지리지 漁陽郡 白檀縣 조에서 “渝水是 北蠻夷 가운데에서 나온다”고 한 것은 마찬가지로 유수를 가리킨다. ‘渝’은 ‘溟’의 글자 모양에서 생긴 잘못이다.) 이 실은 따를만하다.

#### 7) 實從縣

이 현의 위치는 아직 자세하지 않다.

#### 8) 交黎縣(지금의 대릉하성)

『한서』(권28) 지리지 요서군 조에

交黎. 渝水가 塞外에서 首受하고 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東部都尉의 치소이다. 莽이 禽虜라 불렀다.

라고 하였다. 渝水란 지금의 대릉하를 가리킨다.<sup>17)</sup> 이 현이 대릉하 하류에 접해 있는 지방에 있는 것은 이 글로써 우선 생각할 수 있다. 應劭<sup>18)</sup>가 말하기를, “交黎는 지금의 昌黎”라고 했다. 응소는 후한 사람이므로 군국지 기사에는 자연히 창려라는 이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교려 또는 창려라는 이름이 모두 적혀있지 않고 도리어 요동속국 조에<sup>19)</sup> “昌遼는 옛 天遼로 遼西에 속한다”는 구절이 수록되었다. 왕선겸<sup>20)</sup>은

16) 『한서보주』(권28下) 참조.

17) 이 책 147~148쪽 참조.

18) 『한서』(권28) 지리지 이 현의 주석을 참조.

19) [역자주] 원문에는 전거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후한서』지, 권23, 군국5의 요동속국 항목이다.

20) 『한서보주』(권28) 참조.

昌遼는 곧 昌黎이다. 遼와 黎는 雙聲이 변[變轉]한 것이다. 『후한서』 安帝紀에는 다시 夫黎로 쓴다. 鮮卑傳에는 扶黎로 쓴다. 夫와 扶는 같은 자이므로 天은 곧 夫의 잘못임이 분명하다. 交黎는 夫黎로 고쳐졌고, 또한 天遼로 고쳐졌을 것이다. 遼와 黎는 같은 자이므로 續志에 “昌黎는 옛 夫遼이며 遼西에 속한다”고 했다.

라고 하였다. 이 설은 글자 모양의 잘못에서 오는 경로를 주로 관찰한 것이다. 즉 왕씨가 생각하는 바로는 『후한서』 郡國지에 昌遼를 天遼라고 한 것은 夫遼의 잘못으로 부요는 즉 夫黎에 다름 아니지만 요서군에 원래 부려가 없음을 생각하면 부려는 交黎가 고쳐진 것이리라고 했다. 이 설은 경청할만하다. 그렇지만 왕씨의 설인 교려가 부려로 고쳐졌다고 하는 사실은 증명할 만한 것이 없다.(齊의 召南도 전한 때 교려라고 하고, 후한 때 부려라고 불렀을 것이라고 해서 같은 설을 말한다.) 왕씨의 설은 이 점에 유감이 없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찰을 시도하려 한다.

안제기의 부려는 교려의 글자 모양에서 오는 잘못이다. 요동속국의 천요는 交遼의 잘못이다. 그리고 遼와 黎는 雙聲의 轉音에 다름 아니다. 선비전의 부려는 안제기의 부려에서 온 와전이다.

우리는 이 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비전<sup>21)</sup>을 검토한다.

元初 2년 가을 遼東의 鮮卑가 無慮縣을 포위하였다. 州郡이 군사를 합하여 固게 지키고 들을 비우니[淸野]. 鮮卑가 얻은 것이 없었는데 다시 扶黎營을 공격하여 長吏<sup>22)</sup>를 죽였다.

章懷注에는 “扶黎縣은 遼東屬國에 속하였으며 옛 성이 지금의 營州 동남

21) [역자주] 원문에는 전거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선비전은 『후한서』의 烏桓鮮卑列傳이다.

22) [역자주] 지위가 비교적 높은 벼슬아치를 말한다. 한나라 때에는 녹봉 600석 이상의 벼슬아치를 長吏라고 했다.

쪽에 있다”고 했으며, 안제기의 주석에서는 “夫黎縣의 이름은 遼東屬國에 속한다”고 했다. 이 주석이 보여주는 것을 아울러 생각하면 선비는 대릉하 상류로부터 침입해 와서 우선 무려를 포위했으나 얻은 것이 없었으므로 바꾸어 교려를 침범하여 그곳의 長吏를 죽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章懷注에서 무려가 요동부에 속한다고 했으므로 속국의 무려 이외에 다른 하나의 무려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렇지만 그것은 주석의 잘못에 연루된 것이다. 『二十二史攷異』(권14) 및 『晦明軒稿』가 무려를 요동속국의 무려로 비정하고 요동에 또 하나의 무려를 두려한 것은 쓸데없이 군국지의 현 수에 매몰된 잘못이므로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

文黎縣이 후한의 昌黎縣인 것은 여러 방면에서 증명될 수 있는데 『수경주』(권14) 백량수의 주석에는 “白狼水는 또 동북쪽으로 昌黎縣 故城 서쪽을 지난다. 地理志에 交黎는 東部都尉의 치소로 王莽의 禽虜라 했다. 應劭가 지금의 昌黎라고 했다”고 했다. 역도원은 모용씨가 咸康연간에 옮긴 창려군을 한나라 때의 창려라고 잘못 지칭했지만, 교려가 창려인 것은 이것에 의해 증명될 수 있다. 『太平寰宇記』(권71)는 “交黎城은 漢의 현이다. 遼西郡에 속한다. 後漢에서 고쳐서 昌黎라고 했다”고 하여 분명히 전한의 교려가 창려와 동일한 것임을 기록하였다.

이 현이 위치에 대해서 우리는 대릉하 하류 유역에 접한 지방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치통감』(권95)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壬午일에 黠(모용황)이 그 동생인 軍師將軍 評 등을 이끌고 昌黎 동쪽으로부터 얼음을 밟고 나아가니 무릇 300여리였다. 歷林口에 이르러 輜重을 버리고 군사를 가볍게 하여 平郭으로 나아가 성에서 7리쯤 떨어졌다.

라고 하였다. “昌黎 동쪽으로부터 얼음을 밟고 나아갔다”고 한 것은 얼어붙은 바다를 밟고 나아갔음을 말한다. 창려는 당시에는 해변 가까이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顧炎武의 설에 “渝水가 아래로 흘러 남쪽으로 海口에 당한다”고 한 것은 따를만하다.<sup>23)</sup>

## 9) 陽樂縣(지금의 영평부 동쪽)

『후한서』(권5) 元初 4년 4월조에 “鮮卑가 遼西를 노략질하니 遼西郡의 군사 烏桓과 함께 그를 격파하였다”고 했다. 章懷太子의 주석에서 이를 해석하여 “遼西郡의 故城은 지금의 平州 동쪽에 있는데 陽樂城이 이것이다”라고 했다.

平州란 지금의 영평부를 가리킨다. 『대청일통지』(권14)는 舊志를 인용하여 지금의 撫寧縣 서쪽 關外에 있다고 했다. 『수경주』(권14) 유수편에 인용된 『地理風俗記』에 “陽樂은 옛적 燕나라의 故地로 遼西郡의 治所이다. 秦始皇 22년에 설치하였다”라고 했다. 역도원은 이 기사에 의거해 陽樂이 요서군 治所인 것은 秦·漢 이래 변치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역도원이 때때로 후한 이후의 군의 治所를 전한의 治所로 오인했던 것은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다.<sup>24)</sup>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을 하게 된 데에 원인이 없지는 않다. 생각건대 양락은 후한을 시작으로 晉나라 및 後魏에 걸쳐 오래토록 요서군의 治所였다. 한편 전한 때 군의 治所인 且慮縣은 어떠했는가 하면 후한 초기에 일찍이 이미 상실되었고 그 옛 터조차 분명하게 볼 수 없으므로, 역도원이 오인하여 양락을 秦·漢 이래 군의 治所라고 한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것이었으리라. 『대청일통지』의 설은 장희태자의 주석에 첨부되었다. 따를만하다. 그런데 『수경주』(권14) 유수편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수록하여 “『魏土地記』에 말하기를 海陽城 서남쪽에 陽樂城이 있다”고 했다. 海陽은 요서군 아래 하나의 현으로 지금의 灤州 서남쪽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 따르면 양락은 海陽으로부터 더욱 서남쪽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우북평군의 地界에 들어가야 하므로 요서군 治所가 이 같은 지방에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기사가 완전히 잘못된 것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는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생각건대 이 글의 原書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고 “陽樂城 서

23) 『京東考古錄』 참조.

24) 이 책 130쪽 참조.

남쪽에 海陽城이 있다”고 정리되어 있었지만, 베끼는 즈음에 착오가 있어 두 개의 지명이 전도되었을 것이다. 잠정적으로 우리의 추측에 따라 생각할 때 해양은 양락의 서남쪽, 양락은 해양의 동북쪽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장희태자의 주석에는 영평부 동쪽에 당시 아직도 양락성이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아마도 후한 이래의 양락이 북위로 계승된 故城일 것이다.<sup>25)</sup>

#### 10) 狐蘇縣(지금의 錦州府 서북)

『한서』(권28) 지리지 요서군 조에 “狐蘇. 唐就水가 徒河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했다. 우리가 徒河를 지금의 錦州府에서 찾았기 때문에 唐就水는 소릉하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狐蘇는 아마도 소릉하의 지류인 지금

25) 『대청일통지』(권14)는 양락은 한나라 때 유성의 동쪽에 있었는데 魏·晉 무렵부터 산해관 서쪽으로 옮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출했다. 의문은 『대청일통지』가 고백하는 것처럼 『후한서』(권81)[역자주: 원문에는 권111로 되어 있지만, 趙苞傳이 수록된 『후한서』 獨行列傳은 권81이 맞다] 趙苞傳에 의해 추측한 것이다. 傳의 기사에 “趙苞는 字가 威豪으로 甘陵 東武城 사람이다. …… 처음 州郡에서 벼슬할 때 孝廉으로 천거되었고 다시 廣陵令으로 옮겨가서 일을 본 것이 3년이였다. …… 遼西太守로 옮겨가 힘써 노력하고 위세를 엄정히 하여 이름이 변방에 떨쳤다. 임지에 도착한 다음 해에 사자를 보내 어머니와 처자를 맞이하게 하였다. 군에 거의 도달하였을 때 柳城을 지났는데 塞에 들어와 노략질 하는 鮮卑 1만여인을 만났다. 苞의 어머니와 처자가 드디어 겁박받는 바 되었다”고 하였다. 『대청일통지』에 따르면 이 글에서 趙苞가 요서태수의 임지에 가족을 맞이하려고 했을 때 유성을 지났다고 하므로 임지인 요서군 치소는 유성 동쪽에서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해설은 단지 해당 기사만을 판단하면 그러한 추측을 내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이는 유성이 전한의 요서군도위의 치소인 유성과 같은 지역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왜냐하면 위나라 太祖가 후한 말에 烏丸을 유성에서 토벌하려고 했을 때 태조의 군사가 일시적으로 요서의 無終에 자리잡아 진군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다. 이 때 그 지역에 살던 田疇가 태조에게 간언하여 “옛 北平郡의 치소는 平岡에 있는데 길이 盧龍에서 나와 柳城에 도달합니다. 建武 이래로 陷壞斷絶한지 거의 200년입니다만 아직 좁은 길이 있어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建武란 후한의 제1대 世帝 光武 시대를 가리킨다. 요서에서 요동으로 통하는 교통로의 대부분이 후한 초기부터 이미 호환 등에게 점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군국지에서 유성현을 수록하지 않은 것은 이같은 사실에 기반한다. 조포가 요서태수로 부임했던 때는 후한의 靈帝 熹平 6년인데 이 때에 柳城道(조양에서 塞外를 지나 喜峰口로 나온다)를 통과하여 지금의 義州로 나올 수 있었을까. 만일 조포전을 따르려면 전주가 위나라 태조를 일깨운 말도 군국지의 기사도 매우 믿음을 두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포전의 유성이란 어쩌면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이거나 배겨적은 것의 잘못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르지 않는다.

의 女兒河 상류에 있을 것이다.

11) 徒河縣(지금의 금주부)

『한서』(권28) 지리지 요서군조 호소현의 주석에 “唐就水는 徒河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했다. 이상의 기사는 호소현이 당취수 상류에 있고 도하는 그 하류에 있음을 보여준다. 『태평환우기』(권71)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彭盧水の 다른 이름은 盧河니 즉 唐就水이다. 後魏의 風土記에서 말하기를 水가 徒河에 이르러 바다에 들어가 輿地平하는 까닭으로 平盧라 하였다. 지금 잘못 말해서 彭盧라고 한다.

후위의 「風土記」의 글을 『수경주』에서는 인용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太平御覽』이 계산해 올린 經覽書目에는 『後魏輿地圖風土記』가 보이므로 樂史(『태평환우기』의 저자)가 가리킨 것이 이 글에 따른 것은 의심할 것이 없을 것이다. 盧河가 지금의 어느 水로 추정되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렇지만 도하현이 노하 즉 당취수의 강 어귀 바다 가까운 지방에 있었음은 「풍토기」에 의해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通典』(권178) 유성군 영주조에 “徒河靑山은 郡城의 동쪽 190리에 있다”고 해서 지금의 조양 동쪽 190리를 徒河靑山 지역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도하는 한나라의 도하현이 아니다. 생각건대 도하가 후세에 이르러 요서의 범칭이 된 것을 의심할 수 없으므로 杜預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한나라의 도하를 『대청일통지』(권43)에서는 지금의 금주부 서북이라고 하며, 陳澧는 『漢書地理志水道圖說』(권2)에 소릉하를 당취수라고 하고 도하를 錦縣이라고 했다. 이 설은 모두 따를만하다.

12) 文成縣

위치가 자세하지 않다.

## 13) 臨渝縣(지금의 의주)

臨渝는 이 縣城이 渝水를 마주하는 것에서 이름을 얻었다. 『한서』(권28) 지리지 요서군 임유현조에 “渝水는 白狼에 首受해서 동쪽으로 塞外에 들어간다. 또 侯水가 있어 북쪽으로 渝에 들어간다”고 했다. 유수는 또한 榆水라고도 한다. 『수경주』(권14)의 기사에 따르면 유수란 하류의 명칭이고 그 상류는 白狼이라고 불렀다. 그 글은 다음과 같다.

水는 右北平 白狼縣 동남쪽에서 나와 북쪽으로 흘러가고 서북쪽으로 꺾여 廣成縣 故城 남쪽을 지난다. … 또 서북쪽으로 石城川水가 여기에 흘러 들어간다. … 白狼水는 북쪽으로 白狼縣 故城 동쪽을 지난다. … 또 동쪽으로 方城川水가 여기에 흘러들어간다. … 또 동북쪽으로 昌黎縣 故城 서쪽을 지난다. … 高平川水가 여기에 흘러들어간다. … 또 동북쪽으로 自魯水가 여기에 흘러들어간다. … 또 동북쪽으로 龍山 서쪽을 지난다. … 또 북쪽으로 黃龍城 동쪽을 지난다. … 『魏土地記』에서 말했다. 黃龍城 서남쪽에 白狼河가 있는데 동북쪽으로 附城 동북쪽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곧 이것이다. 또 동북쪽에 濫眞水가 塞外 서북쪽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重山을 지나고 동남쪽으로 白狼水에 들어간다. 白狼水는 또 동북쪽으로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 둘로 나뉜다. 오른쪽은 아마도 渝水일 것이다. 地理志에서 말했다. 渝水는 白狼水에 首受하고 서남쪽으로 산을 따른다. 한 故城 서쪽을 지나는데 세간에서 河連城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것이 臨渝縣의 故城일 것이다. … 渝水가 남쪽으로 흘러 동쪽으로 꺾이면 한 水와 만나는데 세간에서 이름하여 말하길 榑倫水라고 한다. 생각건대 戎方의 變名일 것이니 아마도 곧 지리지에서 말하는 侯水가 북쪽으로 渝에 들어가는 것이리라. 十三州志에서 말했다. 侯水가 남쪽으로 渝에 들어간다. 地理志에서 대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간다고 한 것이다. 또 서남쪽으로 흘러 渝로 간다. 渝水는 또 동남쪽으로 한 故城 동쪽을 지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女羅城이라고 한다. 또 남쪽으로 營丘城 서쪽을 지난다. … 그 水는 동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 地理志에서 말하였다. 渝水는 塞外로부터 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유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이 상세하다. 다만 『한서』 지리지에서

“渝水가 白狼에 首受한다”고 말할 뿐 백랑수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므로 다소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지만 이 해석은 오히려 『수경주』를 따라 백랑수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제 백랑수가 상류의 명칭이고 유수가 하류의 명칭인 것은 이 글이 보여주는 바이지만 백랑수는 黃龍城(지금의 조양) 남쪽을 지나는 것이 분명한 이상 지금의 대릉하로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수경주』 기사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이 있다. 무엇인가 하면,

白狼水는 또 동북쪽으로 나와 동쪽으로 흘러 둘로 나뉜다. 오른쪽은 아마도 곧 渝水일 것이다. … 하나의 水는 동북쪽으로 塞에서 나와 白狼水가 된다. 또 동남쪽으로 흘러 房縣에 이르러 遼로 흘러간다. 『魏土地記』에서 말하길 白狼水는 아래로 遼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라는 것이다. 이 글에 따르면 백랑수는 지금의 조양부 동남쪽에서 分岐하여 두 개로 나뉜다. 그리고 그 오른쪽 水는 남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왼쪽 水는 요하와 흐름이 합쳐진다고 해석되지만 이 같은 지형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만일 이 글에 따라 백랑수가 요하로 흘러간다고 하면 의무려산맥의 일부를 뚫고 지나 요하 유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는 지형상 완전히 불가능한 것에 속한다. 대릉하를 유수로 추정하는 설은 여기서 완전히 모순이 생긴다. 그렇다면 지금의 요서에서 오른쪽 水가 서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왼쪽 水가 동북쪽으로 흘러 요하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과 같은 물질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수경주』의 기사는 전혀 근거가 없는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오해가 섞여 있는가. 우리는 위 의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하려고 한다. 백랑수가 둘 있고 저자가 다른 두 개의 백랑수를 하나의 물질로 간주한 것이다. 모순은 실로 여기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제 시험 삼아 그 다음을 진술하겠다.

백랑수는 반드시 하나의 水로 한정할 수 없다. 貞觀 21년 唐나라 장군 李

勤이 고려에서 군사를 돌이켰을 때에 건넌 河에 백량수란 이름이 있고 『文獻通考』(권24) 高麗傳에

21年 李勤이 다시 高麗를 南蘇에서 크게 깨뜨리고 군사를 돌려 頗利城에 이르렀다. 白狼과 黃嶺의 두 水를 건너는데 모두 무릎 이하여서 두 水가 좁고 얕음을 삼가 괴이하게 여겨 契丹인에게 遼源이 있는 바를 물었다. 대답하기를 두 水는 다시 수 리를 가서 합쳐져 남으로 흐르는데 곧 遼水라 부르는데 더 이상 근원을 찾을 수가 없다.

라고 했다. 頗利城이란 지금의 遼濱塔 부근에 있으므로 이 글에 보이는 백량수는 대체로 襄息牧河를 가리킨 것으로 자연히 대릉하와 다른 지역에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는 『魏土地記』에서 말하는 백량수는 아마도 이 물길을 가리킨 것일 수 있다. 역도원은 달리 조양부의 남쪽 강역을 지나는 백량수를 요하의 지류를 이루는 백량수와 섞어서 보았으므로 마침내 역지로 유수를 오른쪽 水라고 하고 왼쪽 水를 백량수라고 한 기묘한 견해를 제출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수경주』의 기사를 해석하여 유수의 상류인 백량수가 分岐하여 어떤 다른 水를 이루지 않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 『수경주』에 적힌 바로는 지금의 대릉하의 물길을 유수라고 하고 아무런 설명이 없다. 조양 동남쪽의 유수를 기록하여 “서남쪽으로 산에 循하고 한 故城 서쪽을 지난다”고 했다. 이 방향은 대릉하가 의주의 서쪽을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渝水는 남쪽으로 흐르고 동쪽으로 꺾여 한 水와 만난다”고 한 것은 의주의 동남쪽으로 굴절하는 대릉하가 동쪽으로부터 흐름이 합쳐지는 細河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수경주』는 이를 가리켜 지리지의 侯水일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또 “동남쪽으로 한 故城 동쪽을 지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女羅城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것은 隋·唐에 알려진 汝羅故城이다. 다음으로 또 “남쪽으로 營邱城 서쪽을 지난다. … 그 水가 동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고 한 것은 營邱城이 十三山 부근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리라.(楊

守敬은 『北魏地形圖』에서 영구군을 대릉하 東岸에 두었다) 이와 같은 일치는 유수를 지금의 대릉하로 비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만역 백량이란 글자의 음이 몽고어 Beilan(榆)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는 상류의 백량은 하류의 榆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대릉하의 상류는 북부 종족에게 점유된 적이 많고, 하류는 漢人이 점유한 것이 오래되었으므로 이 같이 판연한 구별이 지어진 것일까. 견주어 볼 때 사정을 달리 하지만 저 요하가 그 상류는 토착 명칭인 시라무렌이라고 불리고 하류는 漢의 명칭인 遼라고 불리었던 것 같은 것이 또한 하나의 방증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상의 고찰에 기반하여 대릉하가 유수인 것을 거의 증명하였다. 그렇다면 임유는 어느 곳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 하면 『수경주』(권14)는 유수가 조양 방면으로부터 서남쪽으로 흘러오는 것을 기록한 구절에서

산을 따라 한 故城 서쪽을 지난다. 세간에서 河連城이라고 했다. 아마도 臨渝縣의 故城이다. 王莽이 馮德라고 부른 것이다.

라고 했다. 이 글은 대릉하가 의주 서쪽을 지나는 것을 보여준다. 역도원은 그 지역에 있는 河連城을 가리켜 임유현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 설은 따를 만하다.

#### 14) 彙縣(지금의 창령현 남쪽)

『한서』(권28) 지리지는 이 현의 경내에 아래와 같은 여러 水가 있음을 기록한다.

下官水가 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또 揭石水와 賓水가 모두 남쪽으로 官에 들어간다.

이 글은 下官水가 본류이고 揭石水 및 賓水의 두 水가 그 河로 유입되는

것을 보여준다. 『대청일통지』(권13)은 하관수를 『수경주』(권14)에서 말하는 木究水와 동일하다고 하여 이를 지금의 潮河에서 찾았으나 조하는 지금의 창려현 동쪽에 있으며, 따라서 목구수는 이를 난하 서쪽에서 찾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따르기 어렵다. 단 이 글에서 말하는 揭石水는 礪石山에서 발원한다. 『수경주』(권14) 유수의 주석에

濡水는 또 동남쪽으로 絜縣 礪石山에 이른다. 文穎에서 말했다. 石은 遼西 絜縣에 있다. 王莽의 選武이다. 絜縣은 또 臨渝를 포함한다. 王莽이 臨渝을 고쳐 馮德라 했다. 地理志에서 말했다. 大礪石山은 右北平 驪成縣 서남쪽에 있다. 王莽이 揭石이라고 고쳐 불렀다. 漢 武帝가 역시 일찍이 여기에 올라 巨海를 바라보고 여기서 그 石에 채찍질 했다. 지금 바다에 가라앉아 石이 甬道와 같은 것이 수십리이다. 산꼭대기에 가면 大石이 기둥 모양이고 이따금씩 보이는데 巨海 가운데 서있다. 潮水가 크면 곧 숨겨지고 潮波가 물러나면 움직이지 않고 가라앉지도 않아 깊은지 얇은지 알 수 없다. 세간에서 天橋柱라 이름붙였다. 모양이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요컨대 역시 사람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이다. 韋昭가 또한 이를 가리켜 礪石이라고 했다. … 濡水는 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라고 했다. 이 글은 바다 가운데 우뚝 서있는 돌기둥을 가리켜 갈석산이라고 한 것 같다. 文穎이 『한서』(권6) 武帝本紀 元封 원년조에 주석한 것도 이것과 대략 같아서 “이 石은 바다 근방에 나타난다”고 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이에 아직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 石이란 갈석산 가운데 우뚝 선 石을 가리킨 것으로, 바로 漢武帝가 올라간 곳이어야 하는데 이미 갈석산이라고 했고 또 劉昭가 『후한서』에 인용한 『산해경』에 따르면 “礪石의 산은 編水가 여기서 나온다. 그 위는 玉이고 그 아래는 靑碧이다”라고 하며, 郭璞은 海邊山이라고 했다. 갈석산이란 하나 두 개의 우뚝 선 石을 가리킨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역도원의 시대에 이 지형은 두드러지게 변하여 해변의 산이 평지와 서로 이어져 접하고 갈석도 마침내 바다 속으로 침몰하게 되었다. 생각건대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수가 하류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놓은 진흙과 모래의 퇴적과 바다의 조수의 작용에 돌릴 수 있다. 유수는 지금의 난하이므로 갈석은 지금의 灤州 서남쪽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수경주도』(권2책)에 이 산을 樂亭의 동쪽 변경 바다 가운데 둔 것은 옛적과 지금의 지형 변화를 생각하지 않은 잘못이다. 叅縣은 『대청일통지』(권14)에 지금의 창려현 남쪽에 있다고 했다.

### 3. 右北平郡

전한의 右北平郡은 16현을 관장하는데 이 숫자는 秦代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그 강역도 대략 秦代를 계승함을 생각할 수 있다. 平岡縣이 이 군의 치소인데 역도원은 撫終縣을 秦·漢 이래의 치소라고 잘못 이해하였다.<sup>26)</sup> 이를 해석하기 위해 秦代의 우북평군 치소가 무중에 있었던 것을 전한에 들어가 이를 평강으로 옮겼을 것이라고 해도, 무중에 군의 치소가 두어진 것은 앞뒤로 모두 분명한 증거가 없다. 胡三省이 “前漢 北平郡은 平剛에서 다스렸고 後漢은 土垠에서 다스렸고 晉은 徐無에서 다스렸고 後魏는 盧龍에서 다스렸다”고 한 것은<sup>27)</sup> 생각건데 단정이라 해야 할 것이다.

우북평군의 동북방 강역은 대릉하의 上源地를 포괄한다. 그 북단은 지금의 建昌 부근에 다하였을 것이고, 그 동쪽은 松嶺을 한계로 하며 지금의 長成에 이어져서 喜峰口 부근에 다다른다. 서남방 강역은 지금의 承德府 남부를 포괄하고 내려가 薊 및 玉田의 서쪽을 달려 바다에 다다를 것이다. 그 서쪽을 漁陽郡이라고 한다. 난하 하류 유역에서 요서군과 교차하는 경계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만 지금의 난주와 豊潤과의 사이는 대충 西郡의 接界를 이루었을 것이다.

26) 『수경주』(권14) 鮑邱水條 참조.

27) 『자치통감』(권65) 建安12년조의 주석 참조.

## 1) 平剛縣(지금의 平泉州)

전한시대에 우북평군의 치소는 이 현에 설치되었다. 건안 12년 위나라 태조가 오환을 정벌할 때 위군은 이 현대를 지나 유성(조양 서남쪽)으로 향한 적이 있다. 『위지』(권11)<sup>28)</sup> 田疇傳에 이를 전한 것이 자세하다.

옛적 北平郡의 치소는 平岡에 있었고 길이 盧龍에서 나와 柳城에 도달하였습니다. 建武 이래로 陷壤斷絶한지 거의 200년인데 아직 좁은 길이 있어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지금 虜는 장차 대군이 無終으로부터 와서 나아가지 못하면 물러갈 것이라 여겨 해이해져서 방비하지 않습니다. 만약 조용히 회군해서 盧龍口로부터 白檀의 험난한 곳을 넘어 빈 곳으로 나온다면 길이 가깝고 편리할 것이며 방비하지 못한 것을 업습하니 蹋頓의 우두머리를 싸우지 않고도 잡을 수 있습니다. 太祖가 말했다. “좋다.” 이에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며 물 옆 길가에 있는 큰 나무에 기록하기를 “지금은 더운 여름이라 길이 통하지 않으니 또한 가을과 겨울을 기다라 다시 진군하리라.” 虜의 척후기병이 그것을 보고 정말로 대군이 떠났다고 여겼다. 太祖가 疇에게 명령하여 그 무리들을 이끌고 鄉導가 되게 하고 徐無山에 올라 盧龍에서 나와 平岡을 지나 白狼堆에 오르니 柳城과의 거리가 200여리였다. 虜가 이에 크게 놀라 單于가 몸소 진영에 임하여 太祖와 교전하였다. 드디어 목을 베거나 사로잡은 자가 많았고 도망가는 것을 추격하여 柳城에 이르렀다.

이 기사는 위나라 태조의 군사가 無終縣에 도착했을 때 바닷길이 막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田疇가 漢나라 시절의 柳城道를 알려주어 뛰어난 공로를 떨치게 한 것을 말한다. 무종은 지금의 薊州를 말한다. 태조는 이 땅으로부터 徐無山에 올라 盧龍으로 나왔다고 하므로 薊로부터 동북쪽으로 가서 지금의 遼化 북쪽을 지나 희봉구 동쪽에 이른 것이다. 노룡이란 희봉구 좌우 일대 지역을 가리킨다.<sup>29)</sup> 曹操의 군사는 다시 전진했다. 이 글에 따르면 노룡을 나온 군사는 평강을 지나 白狼堆에 올라 유성과의 거리가 200여

28) [역자주] 『삼국지』권11, 魏書 袁張涼國田王邴管傳 제11. 원문에는 권12라 하였지만 田疇傳은 권11에 수록되어 있다.

29) 『三國疆域圖』 참조.

리에 이르렀다고 한다. 유성은 지금의 조양 서남쪽에 있으므로 평강현을 회봉구로부터 조양으로 통하는 빈 길가에서 찾을 수 있음을 알 것이다. 『수경주』(권14) 유수편 백량수조에서 역도원이 내린 해석은 다음과 같다.

내가 살펴보건대 盧龍에서 동쪽으로 淸陁를 넘어 凡城에 이르면 200리 쯤이고, 凡城에서 동북쪽으로 나와 平岡 故城으로 가면 180리이다. 黃龍을 향해가면 곧 500리이다. 따라서 陳壽의 魏志에서 田疇가 군사를 이끌고 盧龍塞에서 나와 산에 참호를 파고 골짜기를 메운 것이 500여리에 白檀을 거쳐 平岡을 지나 白狼에 올라 柳城을 바라봤다. 平岡은 盧龍 동북쪽 먼 곳에 있다.

이 글에 따르면 盧龍塞 동쪽 변경으로부터 凡城에 이르는 것이 200리 쯤, 범성으로부터 평강으로 가는 것은 동북쪽으로 180리라고 한다. 곧 평강은 범성으로부터 서남쪽에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 『위지』(권30) 烏桓傳에 따르면 “建安 11년 太祖가 목소 蹋頓을 柳城에서 토벌하였다. 군사를 숨겨 셋길로 갔으나 100여리도 이르지 못해서 虜가 알았다. 尙과 蹋頓은 무리를 거느리고 凡城에서 맞서싸웠다”고 했다. 범성이 평강으로부터 역시 동북쪽에 있음을 보여준다. 호삼성이 『자치통감』(권65) 백량산 조에 주석한 것에도 “水經注에 白狼山은 右北平 石城縣 서쪽에 있다. 烏丸傳에 凡城에서 맞서싸웠다 했으니 곧 白狼山이 아마도 凡城에 있을 것이다”고 했다. 백량산이 범성 부근에 있고 평강에 없음을 암시하므로 역도원은 아마도 범성과 평강을 뒤바꾸어 기술한 것이다. 이 글은 오히려 淸陁로부터 평강 故城에 이르는 것이 200리 쯤이라고 하고, 평강으로부터 동북쪽으로 나와 범성에 이르는 것을 180리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평강 故城은 회봉구의 동쪽 200淸里 쯤에 있는 것으로, 지금의 平泉州는 바로 평강의 故地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2) 無終縣(지금의 薊州)

지금의 薊州에 있다. 『수경주』(권14) 灑水 조에

灑水는 또 동남쪽으로 흐르는데 그것을 北黃水라고 한다. … 또 서남쪽으로 無終山을 지난다. … 藍水가 흘러가는데 水는 北山에서 나와 동쪽으로 흐르고 꺾여 남쪽으로 가서 無終縣 故城 동쪽을 지난다. … 그 水는 또 남쪽으로 灑水에 들어간다.

라고 했다. 灑水란 지금의 遼化州 서쪽을 지나는 沙河를 말하며 藍水란 薊州 동쪽으로 사하와 흐름이 합쳐지는 琳河를 말한다. 이 글에 따르면 灑水는 藍水와 흐름이 합쳐지는 부근에서 무종산 서남쪽을 지나고, 藍水는 무종 故城 동쪽을 지나 서쪽으로 灑水로 들어가므로 무종은 藍水 즉 지금의 琳河 서변에서 찾을 수 있다. 『수경주』(권14)는 다시 灑水 하류를 서술하여 “灑水는 또 서남쪽으로 庚水에 들어간다. 地理志에서 灑水는 俊靡縣 남쪽에서 나와 無終 동쪽에 이르러 庚水로 들어간다”고 했다. 庚水란 지금의 遼化 동남쪽을 지나는 沽河를 말하며 薊州 동쪽에서 沙河와 합쳐진다. 이 글에 灑水 및 庚水가 무종의 동쪽에서 만난다고 했으므로 무종은 그 서변인 것이 분명하다. 『대청일통지』(권29)가 이 현을 지금의 薊州로 비정한 것은 따를만하다.

『한서』 지리지는 또한 이 현을 지나는 河로서 溲水를 든다. 그 글에서 “灑水는 서쪽으로 雍如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군 둘을 지나는데 650리를 간다”고 했다. 灑水<sup>30)</sup>라는 명칭은 이후에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지만 안사고는 溲의 음이 庚이라고 해서 俊靡縣 조에 있는 庚水가 그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sup>31)</sup> 庚水는 지금의 沽河를 말한다.<sup>32)</sup> 薊縣 동남쪽에서 沙河와 합쳐지고 天津 동쪽을 통과하여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킬 것이다. 다만 오늘날의 沽河 하류는 薊運河와 합류한다. 雍奴는 지금의 천진의 북쪽 武清

30) [역자주] 문맥상 溲水가 아닐까?

31) 『한서』 지리지 요서군 무종현 조 주석 참조.

32) 『水經注圖』 제2책 참조.

縣의 동쪽에 있고, 어양군에 속한다. 이 글에서 군 둘을 지난다고 한 것은 아마도 그 근원이 우북평군에서 시작되어 어영군을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sup>33)</sup>

### 3) 石城縣(지금의 조양부 서남)

『수경주』(권14) 大遼水注에 따르면 石城縣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白狼水. 水는 右北平 白狼縣 동남쪽에서 나와 북쪽으로 흐르고 서북쪽으로 꺾여서 廣成縣 故城 남쪽을 지난다. 또 서북쪽으로 石城川水가 여기로 흘러들어간다. 水는 서남쪽 石城山에서 나와 동쪽으로 흘러 石城縣 故城 남쪽을 지난다.(地理志에서 右北平에 石城縣이 있다고 했다) 북쪽으로 꺾여 白鹿山 서쪽을 지난다.(즉 백랑산이다) 그 水는 또 동북쪽으로 廣成縣 동쪽에 들어가고 白狼水로 흘러간다.

백랑수란 지금의 대릉하를 가리킨다. 이 글에 石城川은 白鹿山 서쪽을 지나 동북쪽으로 가서 대릉하로 흘러간다고 하므로 지금의 대릉하의 상류, 生機河라고 이름붙여진 것이 이것에 상당한 것이다.<sup>34)</sup> 석성의 故城은 이 河가 忸布克河와 흐름이 합쳐지는 부근에서 찾을 수 있다. 『대청일통지』(권14)는 口外 大寧故衛의 경계에 있다고 해서, 지금의 난주 서남쪽에 있는 석성은 廣代의 置縣으로 이것과 전혀 다른 것임을 자세하게 말했다.

### 4) 俊靡縣(지금의 遵化縣 서북쪽)

『수경주』(권14)는 이 현이 灑水의 上源地에 있다고 했다. 그 글에서

灑水는 右北平 俊靡縣에서 나온다. 王莽의 俊麻이다. 동남쪽으로 흐르는데 세간에서 車傘水라고 한다. 또 溫水와 합쳐 아래로 바다에 들어가 끝난다.

33) 『전한지리도』 참조.

34) 『수경주도』 제2책 참조.

라고 했다. 무중은 지금의 薊州를 말한다. 灑水는 薊州 동쪽을 통과하는 沙河를 가리킨다.<sup>35)</sup> 이 글에 “灑水가 右北平 俊靡縣에서 나온다”고 하므로 현은 사하의 上源地에 있을 것이다.<sup>36)</sup> 『한서』(권28) 지리지에는 이 현 조에 “灑水는 남쪽으로 無終에 이르러 동쪽으로 庚에 들어간다”고 했다. 庚水는 지금의 沽河를 말하며 沙河와 沽河는 薊州 동쪽에서 흐름이 합쳐진다.

5) 廷陵縣

위치가 자세하지 않다.

6) 贅縣

위치가 자세하지 않다.

7) 徐無縣(지금의 遵化州)

『수경주』(권14)에는 이 현이 庚水 上源地 쪽에 있는 까닭을 말했다. 그 글에서

庚水는 右北平 徐無縣 北塞 가운데에서 나와 남쪽으로 흘러 徐無山을 지나 黑牛谷水와 만난다. 또 沙谷水와 만나 함께 서쪽으로 산동에서 나와 庚水로 흘러간다. 그 水는 또 徐無縣 故城 동쪽을 지나간다. 王莽의 北順亭이다. 魏 土地記에서 말하기를 右北平城 동북쪽 110리에 徐無城이 있다고 했다. 그 水가 또 서남쪽으로 周盧溪水와 합쳐진다. 水가 徐無山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庚水로 흘러가고 또 서남쪽으로 灑水로 흘러간다.

庚水는 지금의 고하를 가리킨다. 이 글에 따르면 경수의 근원은 徐無縣의 北塞에 해당하고 남쪽으로 흘러간 경수는 오른쪽으로 黑牛谷水 및 沙谷水

35) 『수경주도』 제2책.

36) 『수경주도』 제2책.

를 합쳐져서 서무현 故城 동쪽을 지나간다. 周盧溪水를 지금의 河水로 추정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무 故城이 경수 즉 고하가 사하와 흐름이 합쳐지기 이전에 있었음은 의심할 것 없을 것이다. 『수경주』(권14) 본문에 인용된 『위토지기』에 따르면 “右北平城 동북쪽 110리에 徐無城이 있다”고 하는데, 우북평성이란 후한의 土垠 즉 지금의 豐潤에 있으므로 그 동북쪽 110리의 숫자를 살펴 정녕 遼化州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37)</sup>

#### 8) 字縣

『한서』(권28) 지리지 요동군 조 이 현의 기사에 따르면 해당 경내에 榆水가 있는 것을 기록해서 “榆水가 동쪽에서 나온다”고 했다. 유수의 이 기사는 지나치게 간단하여 그것을 어느 水로 추정할 수 있는지는 매우 자세하지 않다. 그렇지만 요서군 임유현 조에 있는 渝水와 이 榆水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渝水는 “白朗에 首受해서 동쪽으로 塞水에 들어간다”고 쓰여 있어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말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榆水가 동쪽에서 나온다고 한 것을 생각하면 어찌면 곧 渝水의 상류를 가리킨 것일 수 있다. 아마도 渝와 榆는 같은 음으로 榆라고 쓰는 것이 오히려 정확할 수 있다. 『水道提綱』(권2)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설을 제공한다.

石河는 곧 옛 榆河이다. 근원은 邊城 밖에서 나온다. 水가 둘 있어서 하나는 동북쪽 城子峪口의 서남쪽으로부터 흘러들어오고, 다른 하나는 서북쪽 義苑口의 동남쪽으로부터 흘러들어와 합쳐져 하나가 되어 山海衛城의 서남쪽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설은 많이 채용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는 榆水란 이름은 어찌면 石河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옛 유수인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리지의 글을 살펴보면 하류가 바다로 들어간다는

37) 『전한지리도』 참조.

것은 대부분 기재된 것에 잘못이 없다. 그런데 이 글은 동쪽에서 나왔다고만 하고 그 하류를 말하지 않으므로 지금 분명히 바다로 흘러가는 석하를 이것에 비정하려고 하는 것을 비교적 수긍하기 어렵다. 둘째로 『후한서』지(권23)<sup>38)</sup> 군국지를 검토하면 이 현은 후한 때에 이미 없어졌다. 없어진 군현의 다수는 塞上에 근접한 것으로 믿어지므로 산해관과 같은 가까운 지역에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渝水 즉 지금의 대릉하 上源地에서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建昌縣 동북쪽 70浬 정도 of 지역에 元代의 利州가 있고, 그 지역에는 대릉하와 흐름이 합쳐지는 한 枝水가 있는데 이 름하여 榆河라고 한다. 元<sup>39)</sup>의 長壽山 玉京觀地產碑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跋利州之西 憑榆河之渡 屹然魁秀者長壽山也

우리는 당분간 이 榆河를 榆水로 추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현의 위치는 결국 이 河의 유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9) 土垠縣(지금의 豐潤縣 동쪽)

이 현은 豐潤縣 동쪽에 있다. 『수경주』(권14) 鮑邱水 주석에서 巨梁水를 기록해서

巨梁水는 土垠縣 북쪽 陳宮山에서 나온다. 서남쪽으로 흘러 觀雞山을 지나는데 觀溪水라고 한다. 그 물이 또 서남쪽으로 흐른다. 오른쪽으로 區落水와 합쳐지고 또 남쪽으로 土垠縣 故城 서쪽을 지난다. 왼쪽으로는 寒渡水와 만난다. 梁河는 또 남쪽으로 흐르고 澗于水가 여기에 흘러들어간다. 巨梁水가 또 동남쪽으로 五里水와 합쳐지고 어지럽게 흘러 鮑邱水로 들어간다.

38) [역자주] 원문에는 『후한서』(권33)으로 되어 있지만, 제시된 군국지는 『후한서』지, 권23, 군국5 이다.

39) 『蒙古遊牧記』(권2) 喀喇沁 항목 참조.

라고 했다. 巨梁水는 지금의 遷安縣 서쪽에서 발원하여 豐潤縣 서쪽 5리를 흐르고 다시 서남쪽으로 가서 玉田縣 동남쪽 40浬를 지나 하류인 寶抵縣 경계에 이르러 薊運河에 합류하는 遷鄉河를 가리킨다.<sup>40)</sup> 土垠 故城이 환향하 상류 左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청일통지』(권25)는 豐潤縣 舊志를 인용하여

南關城은 현 동쪽 10리에 있다. 즉 土垠 故城이다.

라고 했다. 남관성이란 지금의 陰城舖를 가리킨다. 안사고의 주석에 垠音銀이라고 하므로 音城舖의 陰은 垠의 달라진 음[轉音]이다. 『수경주』는 다시금이 설을 증명하기에 충분할 수 있는 기사를 신고 있다. 그것은 鮑邱水篇의 세 곳에 인용한 『위토지기』의 기사로 그 글에,

右北平城 동북쪽 110리에 徐無城이 있다.

右北平城 서북쪽 130리에 無終城이 있다.

薊城 동북쪽 300리에 右北平城이 있다.

라고 했다. 薊란 지금의 北京을 가리킨다. 그 곳으로부터 동북쪽 300리라고 하므로 풍운현치소 부근에 다다를 것이다. 土垠은 후한 때부터 우북평군의 치소이므로 통틀어 우북평성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대청일통지』가 토은을 풍운현 치소의 동쪽에서 찾은 것은 동북쪽 300리란 숫자와 합하면 정확한 계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풍운을 기점으로 하여 서무 및 무종의 두 현에 이르는 거리는 『토지기』의 글에 모순이 없다면 이 역시 서로 거의 일치한다. 서무는 지금의 遵化 부근에 있으므로 풍운 즉 옛 토은으로부터 동북쪽 110리라고 하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무종은 지금의 계주에 있었다. 이것 역시 풍운 서북쪽 130리라고 하면 거의 동일한 거리에 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는 『위토지기』의 세 가지 기사는 모두 지금의 풍운이

40) 『수경주도』 제2책 참조.

옛 토은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에 아무런 모순이 보이지 않는다.

#### 10) 白狼縣(大城子 동쪽)

대릉하의 상류 우안에 있다. 『수경주』(권14)는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白狼水는 右北平 白狼縣 동남쪽에서 나온다.<sup>41)</sup> 북쪽으로 흐르고 서북쪽으로 꺾여 廣成縣 故城 남쪽을 지난다. 또 서북쪽으로 石城川水가 여기에 흘러들어간다. 水는 서남쪽 石城山에서 나와 동쪽으로 흘러 石城縣 故城 남쪽을 지난다. 북쪽으로 꺾여 白鹿山 서쪽을 지나니 즉 白狼山<sup>42)</sup>이다. 그 水는 또 동북쪽으로 廣成縣에 들어가 동쪽으로 白狼水에 흘러들어간다. 白狼水는 북쪽으로 白狼縣 故城 동쪽을 지난다. 王莽이 伏狄이라고 고쳐 불렀다. 白狼水는 또 동쪽으로 方城川水가 여기에 흘러들어간다.

백랑수관 대릉하 상류를 말한다. 이 글에 이 水가 백랑현의 동남쪽으로 나온다고 한 것을 가지고 이 현을 지금의 건창 부근에서 찾아야 하겠으나 그것은 잘못이다. 한나라의 백랑현은 이곳으로부터 동남쪽에서 구해야 한다. 역도원의 설에 따르면 石城川水 즉 지금의 生機河가 대릉하 본류와 흐름이 합쳐지는 부근에서 백랑현의 故城이 있는 까닭을 말했다. 이것은 분명히 漢代의 현 치소일 것이다. 안사고는 “白狼山이 있어 현의 이름을 삼았다”고 했다.<sup>43)</sup> 역도원은 백록산은 즉 백랑산이라고 말한다. 『蒙古遊牧記』(권

#### 2) 喀喇沁 左翼旗 조에

旗의 동쪽 30리에 백록산이 있는데 몽고 이름을 布祜圖(Bu Khutu)라고 한다. 즉 옛 백랑산이다. 『삼국지』 魏武記에 오환을 북쪽에서 정벌할 때 군

41) [역자주] 본문의 문구와 구두는 “白狼水 出右北平白狼縣東南”이지만, 『수경주』권14 대요수 조의 원문은 “白狼水 右北平白狼縣 東南逕廣成縣”이다. 해석은 저자의 의도를 따라 본문의 인용을 따랐다. 하지만 저자가 이후의 서술에서 백랑수가 백랑현 동남쪽에서 나온다고 한 것은 분명한 오류이다. 원문에 따르면 “백랑수는 우북평 백랑현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광성현을 지나”는 것이다.

42) [역자주] 『수경주』 원문에는 ‘北狼山’으로 되어 있다.

43) 『한서』 지리지 이 현의 항목 참조.

사를 이끌고 盧龍塞를 나와 동쪽으로 유성을 향함에 아직 이르지 못한 거리가 200리에 백량산에 올랐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위서』 地形志에는 영주 建德郡 석성현에 白鹿山祠가 있다고 하고, 『元一統志』에 따르면 백량산은 建州 남쪽 25리에 있다고 했다.

라고 했다. 이 글은 『수경주』가 가리키는 백록산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대청일통지』(권44)는 조조가 백량산에 올라가 유성을 바라봤다고 하므로 그 산은 반드시 높은 산으로 멀리 200리 떨어진 곳을 내려다 볼 것이다. 이제 喀喇沁 좌익 동쪽 30리의 백록산은 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11) 夕陽縣(지금의 난주 서쪽)

『한서』(권28) 지리지에 따르면 이 현에는 鐵官이 있고 莽이 夕陰이라 했다고 한다. 『대청일통지』(14)에서 이 현이 지금의 난주 서쪽에 있음을 말하고 후연의 慕容寶가 高雲을 夕陽公에 책봉했다고 한 것이 곧 이것이다. 이 설은 아마도 舊說에 따랐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설에 대해 반증이 될 만한 것을 알지 못하므로 당분간 이것을 따라야한다.

#### 12) 昌城縣(지금의 唐山 부근)

『수경주』(권14)에 따르면 이 현은 지금의 唐山 부근에 있다. 濡水の 주석에 기록하여

濡水가 동남쪽으로 흘러 樂安亭 남쪽을 지나고 동쪽으로 新河 故瀆과 합쳐진다. 瀆은 雍奴縣(지금의 천진 북쪽)으로부터 鮑丘水(지금의 薊運河)에 이어져 동쪽으로 나오는데 鹽關口라고 한다. 魏나라 太祖가 蹋頓을 정벌할 때에 洵口와 함께 열렸으니 세간에서 新河라고 했다. 陳壽의 魏志에서 말하기를 通海라고 했다. 新河는 또 동북쪽으로 庚水(지금의 沽河)에 絶하고 또 동북쪽으로 나와 右北平을 지나 洵渠之水에 絶하고 또 동북쪽으로 昌城縣 故城 북쪽을 지난다. 新河는 또 동쪽으로 가서 나뉘어 두 개의 水가 되는데 枝瀆이 동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新河는 枝渠 동쪽으로부터 나와 封大

水(지금의 陵河)와 합쳐지는데 交流口라고 한다.

라고 했다. 이 글에 따르면 新河의 故瀆이란 위나라 조조가 오환을 정벌했을 때, 지금의 난하와 白河를 연결해서 파낸 일종의 운하이다. 後魏 시대에는 아직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지형의 변천에 따라 거의 상상하기도 어렵다. 창성현 故城은 이 운하의 枝瀆에 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枝瀆의 위치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성급하게 판단하여 알기 어렵다. 그렇지만 수경주의 글에 따르면 봉대수가 이 성의 동쪽에 있음이 분명하다. 창성은 곧 이 河의 서변에 있을 것이다. 『대청일통지』(권14)에는 난주의 서남쪽이라고 했지만, 성급하게 믿기 어렵다.

### 13) 驪成縣(지금의 樂亭縣 서남쪽)

『한서』(권28) 지리지에 따르면 “大揭石山은 현의 서남쪽에 있다”고 한다. 大揭石山이란 지금의 난주 서남쪽 난하의 강어귀에 위치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驪成縣은 자연히 이 산의 동북쪽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청일통지』(권14)는 『樂亭縣志』를 인용하여 “古城이 현의 서남쪽 30리에 있는데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고 했다. 『晦明軒稿』에 “『대청일통지』의 설은 寓公錐指에 근거하는데 대체적인 위치에서 보면 우북평의 속현에 소재했다고 해도 지장이 없지만, 漢志에 따르면 礪石이 서남쪽에 있다고 하므로 이 설과 일치하지 않는다. 漢志에서 원래 동남쪽이라고 쓴 것을 옮겨 적을 때의 잘못으로 서남쪽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라고 했다. 이 설도 수긍할 만한 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갈석이 난하의 강어귀에 접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驪城이 그 동북쪽에 있었다고 하면 우북평의 한 현이 자연히 요서군에 잘못 섞여들어갔다는 것은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이 갈석산이 전혀 다른 지방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추정은 도리어 위험하다. 갈석은 여전히 난하의 강어귀에서 찾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우리는 당분간 『대청일통지』의 설을 따라 이 현을 갈석산 서남쪽에서 찾아야 한

다.<sup>44)</sup>

14) 廣成縣(지금의 대성자)

『수경주』(권14)에 따르면 이 현은 대릉하 상류에 있다. 같은 항목 백량수의 주석에

白狼水는 右北平 白狼縣 동남쪽에서 나온다.<sup>45)</sup> 북쪽으로 흐르고 서북쪽으로 꺾여 廣成縣 故城 남쪽을 지난다. 王莽의 平虜이다. 사람들이 廣都城이라고 했다. 또 서북쪽으로 石城川水가 여기로 흘러들어간다.

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석성천수 즉 지금의 생기하가 대릉하의 본류와 흐름이 합쳐지는 부근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의 건창 동쪽인 대성자 부근이 이 현의 위치가 될 것이다.

15) 聚陽縣

위치는 자세하지 않다.

16) 平明縣

위치는 자세하지 않다.

투고일 : 2012년 10월 31일, 게재확정일 : 2013년 6월 15일

44) 『晦明軒稿』 碣石考 참조.

45) [역자주] 주 76 참조.